DOI: https://doi.org/10.28977/jbtr.2006.10.19.96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전무용*

1. 머리말

초기 성경 본문의 표현 형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1911년의『셩경젼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기 성서 번역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한국어 문법서를 집필하여 선교사들의 한국어 공부의 출발점이 되었던 로스 목사의 한국어 문법서[1]와 언더우드 목사의 한국어 문법서[2]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 기술이 형태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한국어 이해의 기본 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3]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고, 사용상의 제약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대명사를 한국어 대명사로 그대로 받아서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많다. 본고에서는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는 로스 목사의 문법서에 나타난 간단한 대명사 정리와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서에 나타난 대명사 기술을 살피고,『구역』(1911) 성경과『개역한글판』(1961) 성경을 중심으로 대명사의 표현 문제를 살피되, 필요한 경우에『성경전서 새번역』(2001)을 비교하여 검토한다.『셩경 개역』(1938)이 있지만, 이 본문은 1961년의『개역한글판』성경과 맞춤법만 다를 뿐 번역이 같으므로 따로 구분하여 살피지 않았다.[4]

---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1) Rev. John Ross,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 Hongkong: Kelly & Walsh; Yokohama: Kelly Co.; Mookden: 1882).

2) Horace Grant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Yokohama Seishi Bunsha, 1890),『韓英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 (서울: 탑출판사, 1977).

3) 물론 1894년과 1903년에 출간된 게일(Gale) 목사의 문법서 "*Korean Gramatical Form* (辭課指南ᄉᆞ과지남)"도 빼놓을 수 없다. 게일 목사의 문법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술어 중심의 문법서여서,『구역』으로부터『개역』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화려한 연결어미들을 살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J. S. Gale, *Korean Grammatical Forms* 辭課指南,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4책 (서울: 塔出版社, 1977).

4) 김태룡, "한글판 성경의 원고 작성과 출판 실무 회고,"『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사, 1987), 437-476 참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미세하게 본문에 대한 번역의 조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곳은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곳 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적용된 맞춤법만 다를 뿐 번역이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한국어 번역 성경의 대명사 사용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국어에 맞는 대명사의 사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로스와 언더우드의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대명사 이해

2.1. 로스의 한국어 대명사 이해

1882년에 출간된 최초의 한국어 문법책인 로스 목사의 "문법과 어휘가 있는 한국어 회화" 책인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에 보면 다음과 같이 대명사를 규정하고 있다.

> PRONOUNS(대명사) are, 닉 ne I, 우리 oori we; 네 né 님지 nimdse thou, 네의 néui you; **그 gu, 데 dé** he, she, it; 데덜이 dedüri they.
> INTERROG(의문의) P. 뉘 nooi who:
> REL(관계의). P. 쟈 jia who; ... 거시 güshi that which.
> IMPERS(비인칭의). P. 무삼, moosam, 무어슬 mooösul what.
> DEMONST(지시의). P. 이 i this; **데 dé 그 gu that**.[5]

이것은 문법부 총 20쪽 분량 중에서, 대명사에 대한 서술 전부이다. "님지"와 같은 말은 평안도 방언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말이며, 현재의 표준 표기로는 "임자"이다. "그, 데"를 "he, she, it"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는 관계대명사가 없다. 그 역할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의존명사 "쟈, 거시"를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한국어를 설명한 예로서, 한국어 문법을 생각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인칭 대명사로 설명한 "그, 데"를 지시의 대명사 "that"로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 설명도 영어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영어의 3인칭 대명사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찾고, 영어의 "that"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찾은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언더우드의 한국어 대명사 이해

---

5) John Ross,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10. 괄호 안의 한국어 설명과 굵은 글씨는 필자.

1890년에 집필된 언더우드 목사의 “한국어 회화 입문,”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Language Spoken Language*는 1부 “문법부”(Grammatical Notes)와 2부 “영어를 한국어로”(English into Korean)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1부는 형태론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2부는 품사별로 영어 표현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영어와 한국어를 한 문장씩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대명사를 설명하고 있다. 총 425쪽 분량의 문법책에서 대명사 부분만 14쪽[6]에 이르고 있고, 대명사 부분의 한영 대조 번역 예들을 기술한 부분이 9쪽 분량[7]이다.

1인칭 대명사로는 ‘나, 내, 내가, ᄌᆞ긔, 제가, 쇼인’을 들어 설명하였고, 1인칭 복수대명사로는 ‘우리, 우리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 집”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우리 집**, *lit*. “our house,” means, “my house(내 집),” “home.”
> **우리 안해**, “our wife,” means “my wife(내 부인).”[8]

한국어 “우리 집”의 문자적 의미는 “our house”이며, 실제적인 의미는 “my house, home”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를 “my”로 설명한 것도 한국어 용법을 잘 이해한 것이다.

2인칭 대명사로는 “너, 주, 자네, 공, 당신, 로형, 어루신네”를 들어 설명하였고, 복수로 “너희(들)”을 설명하였다. ‘나, 우리, 너, 너희’가 각각 주격 소유격 여격 목적격 도구격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서에서는 한국어에 ‘he, she, it, they’ 등에 해당하는 3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 설명은 로스가 “데, 그”를 중복해서 설명하여 해결한 것과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그 대신에 “이, 뎌, 그”를 지시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is equivalent to *this*. **뎌** is equivalent to *that*, and is used of things near at hand or in sight. **그** is equivalent to *that*; but refers to things remote and not in sight.”[9]

언더우드 문법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뎌”이고, 눈에 보이는 영역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그”라고 설명하고

---

6)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39-52.
7) Ibid., 273-281.
8) Ibid., 40.
9) Ibid., 51. 여기서 “뎌”로 적은 말은 두음법칙이 적용된 지금의 표기로는 지시어 “저”이다.

있다. 이 설명은 3인칭 대명사의 자리에 “뎌”와 “그”를 사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분이고 설명이다. 『구역』에서는 “뎌”와 “그”를 사용할 때에 이러한 의미 구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요, 조, 고”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 지시어 “이, 저, 그”가 모음 “ㅗ”를 만나서 이루어진 지시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ㅗ”는 “촐랑촐랑/출렁출렁” “졸졸/줄줄” 등의 어감을 비교할 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것을 가리키는 느낌을 띠고 사용되는 “ㅗ”이다. “이, 저, 그”가 “ㅗ”를 만나서 “요, 조, 고”가 되면서 규모가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지시어로 사용된 것이다.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나란히 기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한국어 표현을 “왓소”로 정리한 것은 당시의 실제 한국어를 기술한 것이다.

> “He has come” “왓소/ 뎌 사람 왓소”[10]

언더우드는 이럴 때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번역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는 3인칭 대명사가 없다는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관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No, my brother is the merchant: he is the teacher.”
> “아니오 우리 형님은 장ᄉᆞ요 **그**는 션싱이오.”[11]

이러한 문장에서는 “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형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언더우드는 “그”를 지시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he”에 대응이 되는 3인칭 대명사로 이 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예문에서는 지시어 “그”가 인칭대명사의 자격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국어에는 지시어가 ‘이 애, 저 애, 그 애’의 복합어인 “얘, 쟤, 걔”처럼, ‘이 이, 저 이, 그 이’의 복합어인 ‘이이, 저이, 그이’처럼, 완전히 인칭대명사가 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지시어 ‘저, 그’가 ‘-가, -는, -를, -의’ 등의 격조사와 결합하여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의 3인칭 대명사 “he/she”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어에는 이러한 개념의 대명사가 없다. 지시어가 다양하게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귀의 대명사로 “저, 제, 제가, ᄌᆞ긔” 등을 들고, 이 말들의 의미를 “self, one’s self”로 설명하고 있다.[12] 재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말로 “친히, 스ᄉᆞ로, 손슈

10) Ibid., 43.
11) Ibid., 44.
12) 지시어 “뎌”가 구개음화를 적용한 현대 맞춤법에 따라서 “저”가 되면서, 재귀의 “저”와 형태가 같아진다.

ᄌᆞ하로, 졀노, 서로, 피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I'll go myself"를 "내가 친히 가겟소."로 번역하고 있어서[13], "친히"와 같은 부사를 재귀의 대명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의 대명사로 "누, 누구, 누가, 뉘, 뉘가, 어ᄂᆞ, 엇던, 웬, 무ᄉᆞᆷ, 무엇" 등을 설명하고 있다. 부정의 대명사로는 "엇던, 어ᄂᆞ, 무ᄉᆞᆷ, 아모, 더러, ᄂᆞᆷ"을 설명하고, "다, 모도, 모든, 온, 온통, 여러, 여럿, 여러히, 매, 각" 등을 이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언더우드 목사는 이 문법책에서 한국어 대명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초기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표기에는 이러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대명사에 대한 언더우드의 관찰과 정리는 아주 흥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역』으로부터 『개역한글판』에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대명사 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리이다. 『구역』으로부터 『개역』에 이어지는 3인칭 대명사의 표시 체계의 뿌리를 여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하여 다룰 것이다.

3. 성경의 대명사 사용

일찍이 서정수 님은 이 부분에 천착하여 좋은 연구를 남긴 바 있다.[14] 서정수 님이 정리한 초기 성서에 나타난 인칭대명사 형태는 다음과 같다.

		1인칭	2인칭	3인칭
『성경직히』 (1892-1897)[15]	단수	나	너	뎌
	복수	우리, 우리들, 우리 등	너희, 너희들, 너희 등	뎌들
『마가젼복음셔언히』 (1884)	단수	나, 닉	너	져, 그
	복수	우리, 우리들	너의	져의
『예수셩교젼셔』 (1887)	단수	나, 닉	너, 그ᄃᆡ	뎌
	복수	우리	너희	?
『신약젼셔』(1900)	단수	나, 저	너(선생님)	저, 뎌
	복수	우리	너희	뎌들, 그들, 뎌희

13)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276.

14) 서정수,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137-186.

15) 『셩경직해』 한글활판본 권1-권9권 (1892-1897년 간행). 『셩경직해광익』 한글필사본 권1-권20권 (간행연대 미상).

서정수 님은 이 글에서 1인칭으로 『신약젼셔』(1900) 외에는 1인칭으로 "나"만 쓰이고 "저"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서정수 님이 『신약젼셔』에서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고 분류하고 있는 "저"는 마태복음 8:2; 15:25; 마가복음 1:40; 누가복음 9:57 등에서 가끔 발견된다. 지시의 "뎌"와는 달리 "저"로 표기하였다.

> 마 8:2 ᄀᆞᆯ아ᄃᆡ 쥬ᄭᅴ셔 만일 ᄒᆞ고져ᄒᆞ시면 능히 **저를** ᄭᅥᆨ긋ᄒᆞ게 ᄒᆞ시리이다
> 마 15:25 … ᄀᆞᆯ아ᄃᆡ 쥬여 저를 도으쇼셔 ᄒᆞ거ᄂᆞᆯ
> 막 1:40 … ᄀᆞᆯ아ᄃᆡ 쥬ᄭᅴ셔 만일 ᄒᆞ고져ᄒᆞ시면 능히 **저를** ᄭᅥᆨ긋ᄒᆞ게 ᄒᆞ시리이다
> 눅 5:12 ᄀᆞᆯ아ᄃᆡ 쥬여 만일 ᄒᆞ고져ᄒᆞ시면 면 **나를** ᄭᅥᆨ긋ᄒᆞ게 ᄒᆞ시리이다

누가복음 5:12를 보면 1인칭을 "나"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말이 마가복음 1:40에서는 "저"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뎌"와는 표기가 다르다. "저"는 언더우드의 설명대로는 1인칭의 재귀의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손윗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1인칭 "저"가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용법은 『구역』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발견된다. 누가복음 5:12에서 보듯이, 『구역』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 "나"를 쓰고 있다. 위 몇 곳에서만 이러한 용법의 "저"가 보인다. 이 말은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개역』에서 3인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저"는 『구역』에서는 모두 "뎌"(왕하 8:5, 눅 19:7 등)로 표기하고 있다.

언더우드의 문법에서는 "저"를 "재귀의 대명사(reflexive pronouns)"로 설명하고 있다. 『개역한글판』에서 맞춤법에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면서 『구역』에서 3인칭을 나타내던 지시의 "뎌"가 "저"로 표기가 되었고, 1인칭 재귀의 대명사 "저"와 표기 형태가 같아졌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셩경개역』(1938)에서는 "뎌"가 일부 "그"로 개정되고, 일부는 "뎌"로 유지되고, 이는 『개역한글판』으로 그대로 이어진다.[16] 그 후로, 3인칭을 나타내던 "저"는 『개역개정판』에 오면서 모두 "그"로 개정이 된다. 그러면서 동일 공간 안의 3인칭을 나타내던 지시의 "저"와 가시거리 밖의 3인칭을 나타내던 지시의 "그"가 모두 "그"로 통일이 되면서, 언더우드가 규정했던 의미 구분은 사라지고, 3인칭 대명사 "그"가 통일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17]

2인칭에서는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가 두루 쓰인 현상을 밝히고, 그

16) 아래 "3.3.1. 인칭대명사 '뎌'와 '그'의 사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7) 이러한 변화는 '저'와 '그'의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와 그 지시적 기능 및 대명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유를 다음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1) 순수한 언어적 지시 기능만을 위주로 하였다는 것, (2) 당시 중국어 성서에서 하느님을 "爾(낮춤)"로 번역한 것으로부터의 영향, (3) 라틴 말의 친밀성 2인칭 대명사 tu와의 대응 관계로 친밀감을 나타내려 하였다는 것, (4) 원문의 대명사에 대한 충실한 대응 번역 때문이었다는 것, (5) 성서 글의 문어체적 성격 때문이었다는 것 등의 5가지를 들 수 있다.[18]

또 로스 역『예수셩교젼셔』(1887)나『신약젼셔』(1900)에서는 윗사람에 대하여는 대명사를 피하거나 적절한 의역적 표현으로 대치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더 자세히 밝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19]

『구역』(1911)과『개역한글판』(1961)과『개역개정판』(1998)에서 성서 번역자들이 한국어 대명사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피고,『공동번역성서』(1987)와『성경전서(표준)새번역(개정판)』(2001)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구역』과『개역』(1938)과『개역한글판』성경에서는 3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그들"도 쓰고 있고, "저/저희"도 쓰고 있다. 현대 국어로 올수록 이러한 3인칭의 자리에는 점차 "그"를 쓰고 있고, "저/저희"는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개역개정판』에서는 3인칭으로 사용되었던 "저"가 일부 "그"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사용된 이유와, 이것이 "그"로 사용될 때에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3.1. 1인칭 대명사

3.1.1.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개역한글판』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1인칭 대명사를 "나"로 사용하고 있다. 수직적 계급사회였던 조선 말기에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비격식체 표현 또는 친밀어 표현에 사용하는 1인칭 대명사인 "나"를 사용한 것은 당연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앞에 두고 "나"를 쓰지 않았다. 예전의 어느 대통령은 1인칭 표현으로 "본인"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말을 할 때에 1인칭을 친밀어인 "나"로 말하거나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저"를 사용하기

18) 서정수,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183.
19) Ibid., 183-184.

에는 약간의 꺼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역』 창 1:29 하ᄂᆞ님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온 디면의 씨 밋는 ᄎᆡ소와 씨 잇ᄂᆞᆫ 실과 나무를 너희게 식물노 주고

『개역한글판』 창 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새번역』 창 1:29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KJV Gen 1:29 And God said, Behold, **I** have given you every herb bearing seed, which *is*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in the which *is* the fruit of a tree yielding seed to you it shall be for meat.

위 본문의『구역』에서는 1인칭을 생략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한국어의 용법을 고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구역』에서 1인칭을 생략하지 않은 곳과『개역한글판』의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는 비격식체 또는 친밀어 1인칭 대명사인 "나/내"를 사용하였다.『구역』과『개역한글판』의 대명사 사용의 차이 중 하나는 주어 "내가"의 사용 여부이다. 위 본문에서 보면,『구역』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1인칭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 어법을 반영한 것이다. "원문대로 가감 없이" 번역한다고 하는 번역 원칙을 따른『개역한글판』에서는 주어가 번역에 반영이 되었다. "한국어 어법에 맞게 한다"는 번역 원칙을 앞세운『새번역』에서도 "내가"를 번역문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문장에 주어 "내가"가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이런 정도의 맥락에서는 아무도 주어 "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밥 먹었니?" 하고 묻는데, "**내가** 밥을 먹었어." 하고 대답하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이런 경우에, '**누가** 먹었는지'를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가** 밥을 먹었니?" 하고 묻지 않고, "밥 먹었니?"로만 묻는다. 위 성경 본문에서도 "누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맥락에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아니다. 언더우드의 문법서에서 영어 예문이 "I"로 시작되는 문장에 대한 한국어 대조에서는 대부분 "나는"을 쓰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한국어 어법의 반영이다.

I should like to hear the komungo well played.
검은고 잘 ᄐᆞᄂᆞᆫ 소ᄅᆡ를 드ᄅᆞ면 됴켓소.

위 대비에서 한국어 1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은 것은 한국어 표현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나”를 쓴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영어와 같이 기계적으로 1인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 **I** promised to go, but **I** dont feel well.
> **내가** 가겟다고 상약 ᄒᆞ엿시나 편치 못하오.[20]

이 문장에서도 영어에 1인칭 대명사가 두 번 나온다고 해서 한국어에 1인칭 대명사를 두 번 쓴다면 몹시 어색한 한국어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1인칭 주어가 퍽 어색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번역문 가운데 하나가 세례 예식 때 사용하는 예식문의 주어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ㅇㅇㅇ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세례자가 매번 이 예식문을 읽는데, 그때마다 반복하는 “내가”는 퍽 어색한 한국어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한국어에서는 ‘누가 세례를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맥락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내가”를 쓰지는 않는다. 주어를 쓰지 않는 더 근원적인 이유는 종결 서술형 “-노라”가 주어가 1인칭임을 이미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주어를 쓰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한국어이다. 그러므로 위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서 『구역』이 주어 “내가”를 쓰지 않은 것은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번역한 문장이다. 이 문제는 다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맥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1인칭 대명사의 표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비교해 보니, 『개역한글판』에서 “내가”를 34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구역』에서는 주어를 26회(“나 하ᄂᆞ님이” 2회 포함) 사용하고 있었다. 『구역』에서 주어를 사용하지 않은 8곳은 창세기 1:29, 30; 2:18; 4:9, 14; 9:3 등이고, 『개역한글판』에서 주어를 2회 사용한 곳 중에서 1회만 사용한 곳이 창세기 6:7; 8:21 두 곳이었다. 이 곳들을 살펴보면, 『구역』에서는 주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를 칭하는 1인칭 대명사

한국어에서 “나”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

20) H. G.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261.

는다. 친밀한 사이이거나 격식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사용하는 말이다. 수직적인 개념으로 보면 평교 사이나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은 부모 앞에서 스스로를 "나"로 말한다. 이 말은 "비격식체의 친밀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말을 "손아래 사람에게 쓰거나 평교간에 쓰는 반말"로 규정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다.

손윗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말하는 "저, 제"가 있다.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1인칭 대명사 "저"는, 지시의 대명사 "저"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되, 나를 멀리 거리를 두어서 하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이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언더우드가 구분한 "뎌"와 "저"를, 근원적으로는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말이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다른 말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의견이다. '저'의 복수형인 '저희'에 청자가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희'에 청자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전제하는 또 다른 손위의 사람이 있어서, 그 손윗사람을 중심으로 청자와 화자를 함께 묶어서 말할 때는 청자도 '저희'에 포함될 수 있다. 선후배의 대화에 두 사람 모두를 가르친 스승이 전제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개는 '우리'가 쓰인다.

어린이들이 부모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스스로를 낮추는 말 "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이 말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되 멀리 말하는 어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어린이의 사유 형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어린이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면 격식을 갖추는 표현으로 1인칭 "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것은 마치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로 호칭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 앞에서 스스로를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만큼 거리를 두어서 격식을 갖추어야 할 사이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젊잖게 격식을 갖추는 맥락이 아닌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써 오던 친밀어 "나"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또 가부장제적 권위에 덜 젖은 여성들의 경우에 "나"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나"를 쓰는 사람들도, 시부모 앞의 며느리나 장인 장모 앞의 사위의 경우처럼, 훨씬 더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일인칭 주어가 "저"로 바뀐다.[21]

하나님 앞에서 1인칭을 "나"로 써 온 것은 중립적인 친밀어를 선택한 것으로

21) 사용의 실제에 대해서는 나이별로 성별로 통계를 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할 수 있다. “저”로 쓰는 것은 격식과 예의를 갖춘 표현이며, 스스로를 겸손하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다. 다만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드러나는 표현이어서, 자기 비하적이거나 굴종적인 느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1인칭 독백의 경우에는 “저”를 쓰는 것이 내용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색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기도 또는 간구의 시편에서 독백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저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저”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에 맞지 않는다.

> 『개역한글판』 시 3: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 『개역한글판』 시 4: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 『개역한글판』 시 5: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새번역』 시 5:2 나의 탄식 소리를 귀 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공동개정』 시편 5:2 나의 왕, **나의 하느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체 마소서. 당신께 기도 드립니다.

위의 번역을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여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는 “**저의** 탄식 소리를 귀 담아 들어 주십시오. **저의** 임금님,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번역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자리에 “저”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이유는 이 말의 근원이 지시어 “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할 때 나를 낮추는 형식으로 “저”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립적으로 독백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러 독백형 기도를 할 때, 상대방을 중심으로 말하는 형식을 쓰는 것이 내용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백의 탄원과 기도와 찬양 등이 함께 나오는 맥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1인칭 표현을 “저”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나”로 써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위 아래에서 “나”와 “저”가 혼용되는 경우가 생기고, 몹시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한다면, “나”로 쓸 수밖에 없다.

정중하게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쓰면 예의를 갖추지 않았거나 겸손함이 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겸손함과 정중함과 예의를 갖춘 1인칭 표현으로는 “저”를 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도 모두 “저”를 쓰는 것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의견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말하는 이가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말하는 맥락에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인 “저”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아담의 말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를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의 친밀성 중립성과 “저”의 격식성과 겸손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저”로 말할 때에는 “나”가 가진 즉자적 자아로서의 “중립성” 대신 대자적 자아로서의 “겸손함”을 얻을 수 있지만, 관계의 수직성과 그 속에 내포된 “비굴 또는 굴종”의 자기 비하적 느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저”를 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고 할 때에 이 문제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시편의 기도나 간구 또는 독백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1인칭을 “나”로 할 것인지 “저”로 할 것인지는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정중하게 격식을 갖춘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적 표현이 왜 어색하게 느껴지는지를 엄밀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 『구역』 창 32:9 ᄀᆞᆯᄋᆞ딕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바지 이삭의 하ᄂᆞ님 전에 나를 명ᄒᆞ야 고향 족쇽의게로 도라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플니라 ᄒᆞ엿스니
>
> 『개역한글판』 창 32:9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 『새번역』 창 32:9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
> 『공동개정』 창세 32:10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 **저**에게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야훼여!

『공동번역』에서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 “나의”를 생략하여 번역한 것은 한국어 어법을 배려한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

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원문을 한국 어법에 맞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과, 원문의 문법적 형식을 기계적으로 번역에 반영하는 것 사이에는 타협될 수 없는 골이 있다. 『새번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칭하는 1인칭 대명사를 “저”로 사용한 것은 야곱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갖추어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 『구역』 창 32:11 ᄀᆞᆫ구ᄒᆞ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셔 건져내시옵쇼셔 그가 와셔 **나와 나의 쳐ᄌᆞ를** 칠가 두려워ᄒᆞᄂᆞ이다
> 『개역한글판』 창 32: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 『새번역』 창 32:11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용된 “내 형의 손에서”의 “내”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를 생략하거나 “우리 형의 손에서”처럼 번역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경이 일반 독서물이 아니라 본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기 때문에 “원문대로”를 강조하는 축자적 번역의 경향이 그만큼 강한 것이다.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대조 문법, 그리스어와 한국어의 대조 문법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3.1.3. 사람과 사람 사이의 1인칭의 사용

1) 아브라함과 이삭

> 『구역』 창 22: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의게 닐ᄋᆞ딕 **아바지여** ᄀᆞᆯᄋᆞ딕 **아ᄃᆞᆯ아** 내가 여긔 있노라 이삭이 ᄀᆞᆯᄋᆞ딕 불과 나무는 쥰비ᄒᆞ엿거니와 번제ᄒᆞᆯ 양은 어딕 있ᄂᆞ이까
> 『개역한글판』 창 22: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새번역』 창 22:7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동개정』 창세 22: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위 네 본문에서 한국어의 대명사 사용의 특징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 『구역』에서는 “아바지여”나 “아돌아”로만 적고 소유격 1인칭 “내”를 쓰지 않았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아버지나 아들을 부를 때, “내 아버지!” 하고 부르거나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지 않는다. 『구역』은 이러한 한국어 어법을 잘 반영하여 번역을 하였다. ‘원문대로 가감 없이’라는 번역 원칙을 따르고 있는 『개역한글판』에서는 원어에 있는 대로 1인칭 소유대명사 “내”를 살려서 번역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역한글판』은 이러한 곳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쓰지 않는 어법의 한국어가 본문이 되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한국어 어법을 고려하여 번역을 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1인칭 대명사를 “나”를 쓸지 “저”를 쓸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룻과 나오미, 모세와 아론, 제사장과 일반인들, 왕과 백성들, 예수와 제자들, 빌라도와 예수,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쓰는 1인칭, 성경 속의 모든 1인칭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요점은 1인칭 “저”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점이다. 성경 당시 사람들의 인간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볼 것인지 수직적 관계로 볼 것인지, 또 그 상황이 문화적 변모를 거쳐 한국적 상황으로 수용이 된다면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두가 성경 번역자들의 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어 “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둔다. 그 위에 한국어의 언어사회학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2. 2인칭 대명사의 표현

한국어에는 손윗사람을 부르는 2인칭 대명사가 없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말을 할 때에는 2인칭 대명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술어 중심의 언어여서, 주어가 없이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 가세요?”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명사가 있는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옮길 때에는 특히 2인칭 대명사는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원어에는 높임이나 낮춤이 없기 때문에, 원문의 2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어의 문제이다.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원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살피고,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 한국에서

는 어떤 수준의 말로 대화를 하게 해야 할지를 설정해야 한다. 창세기에서 2인칭이 사용된 맥락을 역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 장절	관계	『구역』 (1911)	『개역』 (1938/1961)	『새번역』 (2001)
창 3:9	아담이 하나님에게	쥬	하나님	하나님(공역: 당신께서)
창 12:12	아브람이 아내 사래	너	그대	당신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그듸	당신	여러분
창 18:4	아브람이 여호와(천사들)께	쥬	당신들	생략
창 18:5	〃	생략	당신	생략
창 19:7-8	롯이 소돔 백성들에게	너희	너희	여보게들, 자네들
창 21:22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너	너	당신
창 22:20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동생	그대의 동생	간접화법으로 번역
창 23:6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당신들	어른께서는
창 23:4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너희	당신들	여러분
창 24:17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생략	네	생략
창 24:46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너의	당신의	생략
창 24:49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브두엘에게	당신들	당신들	어른들
창 24:51	라반과 브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생략	그대	생략
창 30:2	야곱이 라헬에게	너	그대	당신
창 30:16	레아가 야곱에게	그듸	당신	당신
창 31:6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너희	그대들	당신들
창 32:10	야곱이 하나님에게	생략	주께서	주님께서
창 32:29	야곱이 천사	당신	당신	당신
창 34:8-9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네, 너희 즈녀와 우리 즈녀로	너희, 너희와 우리가	댁, 우리 사이에
창 37:7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당신들	형들
창 38:16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너	너	너
창 38:16	다말이 시부 유다에게	너	당신	생략

책 장절	관계	『구역』 (1911)	『개역』 (1938/1961)	『새번역』 (2001)
창 39:9	유다가 주인 여자에게	당신	당신	마님
창 39:17	여자가 남편에게	그듸	당신	당신
창 40:14	요셉이 시종장에게	당신	당신	시종장께서
창 44:8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당신	당신	그대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당신들	형님들
창 50:17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	당신	아우님

『구역』과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이 모두 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역』에서는 높임으로 하나님께는 실명사로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쥬"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높임에는 "당신"을 사용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는 "그듸"를 사용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는 "너"를 사용하였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높임말로는 일반적으로 "당신(들)"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실명사로 바꾸거나 "주"로 번역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대"를 사용하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사용하였다. 『구역』에서는 생략한 곳이 많이 있었는데, 『개역한글판』에서는 생략하지 않고 모두 번역하였다.

한국어에서 직접적인 발화 상황에서는 손윗사람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과속운전, 가족의 눈물"과 같은 표어에서 볼 수 있듯이, 간접적인 발화 상황에 사용된 "당신"은 독자에게 직접적인 침해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발화의 간접성'**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이 '너의 과속운전'과 같이 직선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표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 표어를 보는 독자를 직선적으로 가리키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 그 발화자의 발화 '방향' 또는 표어라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이다. 이 '방향' 또는 '거리' 때문에 독자가 '직선적인 침해'를 받는 느낌이 생기지 않는다. 외국 영화의 번역에서, 정중하게 상대를 부르는 2인칭 대명사를 '당신'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할 때에는, 시청자들은 이 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직선적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 느낄 수 있는 침해의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사용된 "당신"이라는 표현들이 그동안 한국의 성경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읽힌 맥락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며, 독자가 직접적인 침해의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개역한글판』에서 높임말로 "당신"을 사용한 것은 한국어를 생각할 때에 비현실적이다. 한국어에서는 손윗사람을 직접 "당신"이라는

대명사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22]

『새번역』에서 "형님/아우님"과 같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번역하거나, "시종장"과 같이 직책을 부르거나, "어른들"과 같이 실명사로 바꾸거나, 생략을 하거나, "그대", "마님", "댁" 등으로 다양하게 2인칭 대명사를 번역한 것은 현대 한국어의 현실을 배려한 것이다. 일부 "당신"을 사용한 곳도 보이지만, 대부분 부부 사이에 사용한 것이어서 무리가 없다.

『구역』과 『개역한글판』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형 아론에게 "너"라 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당신"으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 『개역한글판』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22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
> 『새번역』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 두셨습니까?" 22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당신"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표현이다. 대통령의 형이 대통령에게 2인칭 대명사로 "당신"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형에게 "너"라 하는 것은 한국어로는 현실성이 없다. 물론 많은 경우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신학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새번역』이 "형님, 아우님"과 같이 실명사로 번역하면서 서로 높여서 말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한국어의 현실을 배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구역』과 『개역한글판』의 주기도에서는 "이름", "나라", "뜻" 앞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를 모두 생략했다. 한국어의 어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문대로 가감 없이"라는 번역 이론을 바탕으로 이곳에 대명사 "당신"을 첨가했다면, 한국인들 중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 9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2) 전무용, "성서 번역실의 답변," 「성서한국」 50:2 (2004 여름).

『새번역』에서는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으로 번역하여, 가시거리 밖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 “그”로 원문의 2인칭 대명사를 받았다. 이는 ‘발화자의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그”의 지시적 의미를 잘 고려한 하나의 한국어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아버지의”로 실명사화했다. 이처럼 실명사로 번역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기도에서 2인칭 대명사를 실명사 “아버지”로 바꾸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나 문법적인 측면이나 한국어 어법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의 반대가 있다.[23] “당신”을 사용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24] 가시거리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 호칭이라는 점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는 말이다. “당신”의 이러한 속성을 전통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 “세째 가리킴에서 훌륭히 아주 높힘이 되나니”라 하며,[25] ‘3인칭 극존칭’이라는 말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직접 눈 앞의 손윗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쓸 수 없다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제약 때문에 이 말의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26]

3.3. 3인칭 대명사

3.3.1. 3인칭 대명사 “뎌”와 “그”의 사용

『구역』에서는 “뎌”와 “그”를 의미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언더우드 목사가 규정한 것처럼, 동일 공간 안에, 곧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지칭 대상에 대해서는 “뎌”를 사용하였고, 동일 공간 밖의 거리에 있는 지칭 대상, 가시적인 거리 밖에 있는 지칭 대상, 곧 말하는 이의 마음 속에 지칭 대상이 있는 맥락에서는 “그”를 사용하였다.

> 창 3:22 여호와 하ᄂᆞ님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사ᄅᆞᆷ의 션악을 앒이 우리와 ᄀᆞᆺᄒᆞ니 **그가** ᄯᅩ 손을 들어 싱명 나무 실과를 ᄯᅡ먹고 영싱ᄒᆞᆯ까 ᄒᆞ노라 ᄒᆞ시고
> 창 16:4 **그가** 잉틱ᄒᆞᆷ을 ᄭᆡ닷고 그 샹뎐을 멸시ᄒᆞ거늘 5 사래가 아브람의

23) 최영실,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어 성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16 (2005. 4), 117-147.

24) Young-Jin Min & Ji-Youn Cho,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ek Personal Pronoun σου in the Lord’s Prayer”, 「성경원문연구」 17 (2005. 10), 133; 나채운,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개정증보판, (서울: 성지출판사, 2001), 105-112.

25) 최현배, 『우리말본』, 세번째 고침판 (서울: 정음문화사, 1961), 238.

26) 전무용, “성서 번역실의 답변,” 참조.

게 닐ᄋᆞ디 나의 욕봄이 그디의 ᄭᅮᆫ이로다

창 16:12 **그가** 사ᄅᆞᆷ 중 들 라귀 갓치 되여 그 손이 모든 사ᄅᆞᆷ을 치고 모든 사ᄅᆞᆷ의 손이 그를 치리니 **그가** 형뎨를 ᄯᅥ나 살니라

창 32:11 ᄀᆞᆫ구ᄒᆞ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셔 건져내시옵쇼셔 **그가** 와셔 나와 나의 쳐ᄌᆞ를 칠가 두려워ᄒᆞᄂᆞ이다

마 12:4 **그가** 하ᄂᆞ님의 뎐에 드러가셔 진셜병을 먹엇스니 그 ᄯᅧᆨ은 다윗과 그 ᄒᆞᆷᄭᅴ 간 사ᄅᆞᆷ들이 먹기가 합당치 아니ᄒᆞᆫ 것이오 제ᄉᆞ쟝들만 먹을 것이라

창 10:10 **뎌가** 신알에 잇ᄂᆞᆫ 있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3:22에서는 “영생할까” 하고 말하는 내용으로,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맥락이다. 16:4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서술은 “닐ᄋᆞ디” 쪽이고, “그가” 멸시하는 일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멸시”도 지나간 일에 대한 진술이다. 16:12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이므로, 역시 마음 속에 있는 일에 대한 진술이다. 마태복음 12:4도 “그”가 한 일은 이미 예전에 한 일이며, 말하는 이의 생각 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서 창세기 10:10의 “뎌”는 이 진술이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현재적 상황이다.

3인칭이 모두 이렇게 “뎌”나 “그”로 번역이 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구역』과 『개역한글판』 모두 대명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거나 지시어 “그”로 받고 있다. 이는 한국어 대명사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영어가 하나님을 “He/His”로 표현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KJV Gen 2:2 And on the seventh day God ended **his** work which **he** had mad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made.

NIV Gen 2:2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the work **he** had been doing;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TEV Gen 2:2 By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what **he** had been doing and stopped working.

CEV Gen 2:2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his** work, and so **he** rested.

『구역』 창 2:2 닐곱재날에는 하ᄂᆞ님이 **그** ᄒᆞ시던 일을 ᄆᆞᆺ치시고 그 날에 안식ᄒᆞ셨스니

『개역한글판』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새번역』 창 2:2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위의『구역』과『개역한글판』본문에서 사용한 "그"는 지시어 "그"이며, 대명사가 아니다.『구역』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이 아니라, 소유격의 3인칭을 써야 할 경우에, 지시어 "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새번역』에서는 "하나님"으로 실명사를 한 번 사용하고, 나머지 대명사는 모두 생략하였다.

『개역한글판』으로 오면서 "뎌"와 "그"의 사용에 변화가 온다. 책에 따라서 언더우드 목사가 규정했던 의미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책도 보이고,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그"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책도 보인다.『개역한글판』의 창세기에서 "그가"는 157회 검색이 되는데, "저가"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27] 그 중에서 25장까지 66건을 조사하니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서 보면『구역』과『개역한글판』사이에 대명사의 사용에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발견된다.

(1)『구역』에는 없던 "그가"가『개역한글판』에서 첨가된다.

창 2:21; 3:12, 4:2; 4:9; 6:9, 10; 8:8, 9; 10:9, 11; 12:8, 11; 13:3, 4; 14:19; 15:8; 17:14, 20; 18:17; 19:21; 20:4, 5; 21:10, 20, 21, 34; 22:1, 7; 23:10; 24:7, 12, 16, 18, 22, 29, 30, 34, 46, 54, 55, 58, 62, 25:8.

『구역』창세기 22:7에서는 "ᄀᆞᆯᄋᆞ딕"로 번역했던 본문을『개역한글판』에서 "**그**가 가로되"로 개정하여, 역시 원어의 대명사를 "그가"로 살려서 대명사로 번역하였다. 창세기 24:7과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그가"로 호칭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국어 대명사의 특성과 함께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손위 사람에 대한 호칭을 "그가"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2)『구역』에서 실명사로 번역했던 본문을 대명사 "그가"로 개정한 곳도 보인다.

창 5:5, 8, 11, 14, 17, 20, 23; 12:7; 18:1, 2; 21:4; 25:22.

(3) "뎌가"로 번역했던 본문도 모두 "그가"로 개정한다. 본문의 의미 맥락과 상관이 없이 모두 기계적으로 "그가"로 개정되는 것이다.

창 4:17, 25; 10:10 (뎌가>그의); 16:5; 17:16; 18:10; 20:5 (뎌는>그는).

『구역』창 4:17 가인이 안히와 동침ᄒᆞ니 **뎌가** 잉틱ᄒᆞ야 에녹을 나흔지라 가인이 셩을 싸코 그 아ᄃᆞᆯ의 일홈으로 셩을 일홈ᄒᆞ야 에녹이라 ᄒᆞ니라
『개역한글판』창 4:17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구역』창 4:25 아담이 다시 안히와 동침ᄒᆞ니 **뎌가** 아ᄃᆞᆯ을 낫코 ᄀᆞᆯᄋᆞ딕 하ᄂᆞ님이 나를 위ᄒᆞ야 다른 아ᄃᆞᆯ을 주어 가인의 죽인 아벨을 대신ᄒᆞ게 ᄒᆞ셨

27)「대한성서공회 CD-ROM 성경 2.0」(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다 ᄒᆞ야 셋이라 일홈ᄒᆞ다
『개역한글판』 창 4: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구역』 창 10:10 **뎌가** 신알에 있ᄂᆞᆫ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에셔 나라를 창셜ᄒᆞ고
『개역한글판』 창 10: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4) 『구역』에서부터 "그가"를 사용한 경우
창 3:22; 16:4; 16:12.

창 3:22 여호와 하ᄂᆞ님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사람의 션악을 앎이 우리와 ᄀᆞᆺ흐니 **그가** ᄯᅩ 손을 들어 ᄉᆡᆼ명 나무 실과도 ᄯᅡ먹고 영ᄉᆡᆼᄒᆞᆯ가 ᄒᆞ노라 하시고
창 16:4 **그가** ᄋᆡᆼᄐᆡᆷ을 ᄭᅵᄃᆞᆺ고 그 샹뎐을 멸시ᄒᆞ거늘 5 사래가 아브람의게 닐ᄋᆞᄃᆡ 나의 욕봄이 그ᄃᆡ의 ᄭᅮᄃᆞᆱ이로다
창 16:12 **그가** 사ᄅᆞᆷ 즁 들 라귀 갓치 되여 그 손이 모든 사ᄅᆞᆷ을 치고 모든 사ᄅᆞᆷ의 손이 그를 치리니 **그가** 형뎨를 ᄯᅥ나 살니라

이 본문에서 보듯이 『구역』에서는 마음 속의 대상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그가"를 썼다. 16:12와 같은 곳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아이를 두고 말하는 맥락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곧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을 말할 때 "그가"를 썼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발화 상황을 기준으로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는 "뎌"를 쓰고 있다.

『개역한글판』에 오면서, 구약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사무엘상까지 3인칭 대명사로는 "저가"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모두 "그가"로 통일하였다. 이는 창세기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술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변화이다. 그럼으로써 "저가"가 나타내 주던 상황의 현재성은 사라지고, 창세기 기록자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양식으로 진술의 차원이 달라진다. 창세기의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던 상황과 기록자의 기록 상황이 분리가 된다. 이처럼 "그"를 사용함으로써 진술 상황의 차원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욥기 잠언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등의 책에서도 "저가"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모두 "그가"가 3인칭으로 사용되었다. 이와는 달리, 『개역한글판』의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

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전도서 애가 호세아 아모스" 등에서는 대부분 "저가"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된다.

삼하 1:2 제 삼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위 본문에서는 "절하매"라고 하는 현재 진행의 가시적인 상황이므로, 지시어 "저가"로 적어서 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저가"는 모두『구역』의 "뎌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개역한글판』사무엘하에서는 "저가"가 59회 사용이 되고, "그가"는 다음 3회만 사용된다.

삼하 1:15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삼하 9:4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삼하 13:26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위의 본문의 용법을 보면, 눈 앞의 대화의 상대자를 이르는 3인칭으로는 "저가"가 사용이 되고, "그가"는 말하는 이의 마음 속에 지칭 대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다. 사무엘하 1:15에서는 하나의 상황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와 "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같은 지시어로 가리킬 때에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로 이른 맥락은 말하는 이의 눈앞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역한글판』구약에 와서는 이처럼 책별로 "저"와 "그"의 사용이『구역』과는 부분적으로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경의 개정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달리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정자들에 따라서, 분담하여 개정 작업을 한 책에 따라서, 대명사의 사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개역한글판』신약에서는『구역』대로 "저가"와 "그가"가 함께 언더우드 목사가 규정한 두 대명사의 의미 규정에 따라서 구분을 두고 사용되어 있다.

마 12: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위 본문에서 “저가”는 발화 상황 안에서 눈 앞의 3인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고, “그가”는 발화 상황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대상, 말하는 이의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신약 전체에 이 구분이 적용되고 있다.

3.3.2. 3인칭 소유격 “그의”의 사용의 특징

“그”를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개역한글판』창세기에서는 3인칭 소유격으로 “그의”를 사용한 것이 39회나 보인다.

>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창 3: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 창 7: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들은『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지시어 “그”로 적었던 본문이다.

> 창 3:15 너는 **그** 발굼치를 샹ᄒᆞ리라
> 창 3:23 **그** 육톄의 근본 된 토디를 갈게 ᄒᆞ시고
> 창 7:13 이 날에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러나 “그”를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개역한글판』사무엘하에서는 “그의”를 사용한 것이 아래 2회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의”로 개정하지 않고,『구역』에서 사용한 지시어 “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삼하 22:8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 삼하 23:21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구역』에서 지시어 “그”로 번역했던 소유격 대명사는『개역한글판』창세기에서는 대부분 “그의”로 개정했지만,『개역한글판』사무엘하에서는 대부분『구역』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시어 “그”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엘하에서는 지시

어 “그”가 231회 검색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지시어로 사용된 곳들도 있지만, 3인칭 소유격 대명사의 한국어 표현으로 지시어 “그”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 『개역한글판』 사무엘하 1장에서만 보면 인칭 소유격을 지시어 “그”로 번역한 곳은 2, 4, 5, 10, 12, 13, 17절 이렇게 7회이고, 지시어로 “그”를 사용한 곳은 다음 13절의 1회 뿐이다.

> 삼하 1:2 제 삼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 삼하 1:13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4. 맺음말

로스의 문법에서는 “그, 뎨”를 “he, she, it”로 설명하고 있다. 3인칭 대명사로 설명한 “그, 데”를 지시의 대명사 “that”로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언더우드 목사의 문법서에서는 한국어에는 “he, she, it, they” 등에 해당하는 3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 뎌, 그”를 지시어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역』에서는 한국어답게 대명사를 많이 생략하고 있다. 생략한 것은 한국어 어법을 잘 살린 것이고, 『개역한글판』은 원문에 따라서 이를 대부분 번역하여 줌으로써, 한국어가 어색해졌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대부분 대명사를 원문에 있는 대로 살려서 썼는데, 어색한 한국어가 된 곳이 많다.

대부분의 대명사의 사용 제약은 존비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구역』과 『개역한글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말하는 1인칭으로 “나”를 썼다. 『새번역』에 와서 일부 “저”를 사용하고 있다. 『새번역』에서는 기도나 독백의 맥락에서는 “나”를 썼다. 지시어 “저”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말하는 말로, “나”를 말할 때에 지시어 “저”로 멀리 말함으로써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낮추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중립적으로 독백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러 독백형 기도를 할 때 1인칭을 “저”로 말하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1인칭 대명사를 “나”를 쓸지 “저”를 쓸지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한국어 “저”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멀리 가리킴으로써 겸손하게 하는 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 한국어의 언어사회학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역』에서는 높임으로 하나님께는 실명사로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쥬”를 사

용하였고, 일반적인 높임에는 “당신”을 사용하였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높임말로는 일반적으로 “당신(들)”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실명사로 바꾸거나 “주”로 번역하였다. 『구역』에서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생략한 것은 한국어의 어법이 고려된 선택으로 보인다. 『개역한글판』에서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지 않고 모두 번역하면서 높임말로 거의 기계적으로 “당신”을 사용한 것은 ‘발화의 간접성’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었으나, 현실성이 적다. 『새번역』에서 실명사로 바꾸거나, 생략을 하거나, “그대”, “마님”, “댁” 등으로 다양하게 2인칭 대명사를 번역한 것은 한국어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구역』에서는 “뎌, 저, 그” 등의 지시어를 대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뎌”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는 말하는 이의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개역한글판』의 구약에서는, 어떤 책들에서는 모두 “그”로 통일이 되고, 어떤 책들에서는 『구역』대로 “그”와 “저(뎌)”를 구분하여 유지하고 있다. 번역자에 따라서 한국어 대명사를 달리 사용한 것이다.

창세기 24:7에서는 하나님을 “그가”로 호칭하였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손위 사람에 대한 호칭을 “그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생각할 때에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주요어>(Keyword)
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韓英文法』, 한국어 회화
pronoun, personal pronoun, demonstrative pronoun, *Korean Spoken Language*, *KOREAN SPEECH*

<참고문헌>

『관쥬 셩경젼셔』, 서울: 대한셩셔공회, 1950, 1980 재인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김태룡, "한글판 성경의 원고 작성과 출판 실무 회고,"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7.
나채운,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개정증보판, 서울: 성지출판사, 2001.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8.
서정수,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전무용, "성서 번역실의 답변" 「성서한국」 50:2 (2004).
최영실,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어 성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16 (2005. 4).
최현배, 『우리말본』, 세번째 고침판, 서울: 정음문화사, 1961.

Min Young-Jin & Cho Ji-Youn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ek Personal Pronoun σου in the Lord's Prayer", 「성경원문연구」 17 (2005. 10)
Gale, J. S., *Korean grammatical forms* 辭課指南,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4책, 서울: 塔出版社, 1977.
Ross, John.,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 Hongkong: Kelly & Walsh; Yokohama: Kelly Co.; Mookden: 1882.
Underwood, Horace Grant.,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Yokohama Seishi Bunsha, 1890, 『韓英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 서울: 탑출판사, 1977.

「대한성서공회 CD-ROM 성경 2.0」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Abstract>

A Review of Pronouns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reviews the use of pronouns in Rev. Ross' grammar book,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Korean grammar book, and in the grammar book written by Rev. Underwood, and compares the use of pronouns in the *Korean Bible* (1911),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According to Ross' grammar book, 'gu, dé' are explained as 'he, she, it,' and 'gu, dé'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the third personal pronouns, are again explained as the demonstrative pronoun of 'that.' In Rev. Underwood's grammar book, it is written that there is no third personal pronoun in Korean, and classifies and explains 'i, dé, gu ' as demonstrative pronouns.

The *Korean Bible* (1911) reflects the natur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us omits many pronouns. In case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it has tried to reflect as many pronouns of the original text as possible, and thus includes many places in awkward Korean. In the *Korean Bible* and the *Korean Revised Version*, translators have used 'na' in places where people refer to themselves in front of God. I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translators have used 'cheo' in some conversations and 'na' when people are praying or talking to themselves. The demonstrative pronoun of 'cheo' focuses on the counterpart, and by distancing oneself by using the pronoun, 'cheo' instead of using 'I,' the speaker lowers him/herself, so it sound awkward when the first person pronoun of 'cheo' is used for a neutral monologue.

When calling God, translators of the *Korean Bible* have changed the pronoun to noun substantive or used 'jue' or omitted it, and for honoring in general, they have used 'tangsin.' Koreans could accept the use of the second personal honorific pronoun of 'tangsin'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without much rejection due to 'indirectness of locution,' but such use is not so appropriate in reality. The reality of Korean language is well reflected i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which uses noun substantives or a variety of second personal pronouns like 'keudae, manim, daeg,' or chooses to omit.

In the *Korean Bible* , demonstrative adjectives like 'dé, cheo, gu,' and so on are used as pronouns. 'dé' is used to refer to visible objects, and 'gu' to refer to objects in the speaker's mind. In the Old Testament of the *Korean Revised Version*, some books uniformly use 'gu' while some books maintain the renderings of the *Korean Bible* by differentiating 'gu' and 'cheo(dyeo).'